

정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

“나에게 호남은 대통합정치의 출발점”

만남사람=임동욱 서울취재부장

광주일보에는 25일 '여야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만나 그의 정치 철학과 국정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후보는 '합리적 보수'의 아이러니하게 소통을 근간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9층에 마련된 임 후보의 경선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을 앞두고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결국 근저에 흐르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은 소문과 포용이다. 국민과 정부가 잘 소통되는 나라가 건강한 국가다. 여기에 상대적 약자인 서민과 중산층의 걱정을 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졌다. 10년 전인 지난 2002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내면서 국민이 하나가 되고 국가의 미래지향적 틀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렵겠다는 위기 의식을 갖게 되면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입장과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을 평가한다면.

▲경제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5·16 쿠데타'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 5·16 이후의 경제적 성공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다.

특히, 5·16이 국가의 결단이고 혁명이라면 당시 반독재 민주화 투쟁 벌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고 반국가주의자들이다. 매우 위험한 사고다.

박근혜 후보의 5·16에 대한 역사 인식은 "아버지가 이만큼 잘살게 해줬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갖고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없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

경제 성공 이유로 쿠데타 정당화 해서는 안

광주 문화·전남 관광 육성 시너지 극대화

-새로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 방향은.

▲합리적 실용주의를 토대로 개방형 플랫폼 정책을 펴야 한다.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강화, 소비자인 국민에게 정책이 도달해야 한다. 정책 제시가 50%, 정책 마케팅이 50% 정도 돼야 한다.

여기에 공정 사회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공정 사회의 핵심 가치는 자율, 공정, 책임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에 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 운영 리더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시장의 파수꾼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공정 사회'는 구현될 수 있다.

-안철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안풍은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기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장 재임시 안 교수와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거래 등을 놓고 많은 논의를 했었다. 하지만 안 교수가 국정 운영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대통령이냐는 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안 교수가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선수로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정당 중심으로 짜여 있는 정치구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있다면.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에 기업이 유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상속에 특례 등의 인센티브 부여,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농촌 활성화정책도 절실하다. 농촌에 문화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구축,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은 우선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는 국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입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특사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재직시, 김장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통일문제인 동시에 외교문제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연성과 창의성, 대북 경험 등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과만 놓고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남북 관계의 기본 틀을 바꾼 것은 충분히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저자세 패주'식의 틀에서 벗어나, 물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물꼬를 텃지만 추진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임 후보에게 호남은 어떠한 의미인가.

▲당과 정부에 있으면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F1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물론 여수엑스포 등 각종 광주·전남 지역 현안 예산 지원에도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이러한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목포 명예시민이라는 영광도 얻었다. 제게는 호남이 희망이고, 호남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 호남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를 넘어 대한민국 대통합의 상징이 되어달라고 감히 요청드린다.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이 있다면.

▲광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제 문화예술 도시이며, 전남은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문화예술, 스포츠, IT, 관광 분야라는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 우선 광주에 문화예술분야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한편 전남의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시켜 광주·전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광주의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육성시키고 전남의 J프로젝트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tuim@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영남출신 ... 친화력 뛰어난 MB 메신저

■ 걸어온 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메신저였다. 어려운 현안이 터질 때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다른 인사들에게 전할 때 늘 그가 있었다. 뛰어난 친화력 덕분이다.

그는 새누리당내 친이·친박계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했으며, 당내 어떤 인사와도 무난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야당에서도 그의 정책능력과 온화한 성품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경기 성남 출신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 24회로 기획재정부(옛 재무부)에서 실력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는 16대 총선(성남 분당을)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

희창 후보의 경제브레인으로서 활동했고 최병렬 대표 시절엔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07년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이후엔 대선 후보 및 당선인 비서실장을 잇달아 역임했다.

이후 2009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되고 이후 대통령 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의 실체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엔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인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해 행정 능력도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정책능력과 정부구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비영남 출신으로 지역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젊은세대 지지 기반... 정치권 인맥도 탄탄

■ 임태희의 사람들

임태희 전 실장의 인적네트워크는 광범위하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의원 등을 지내면서 쌓은 정치권 인맥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비(非) 영남 출신인 그는 영·호남 학계·문화 인사들을 두루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최대 지지 기반은 정치권도 아닌 젊은 세대들이다.

이 때문인지 그의 캠프엔 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고교 후배 또는 대학 후배들이 곁을 지키고 있다.

우선 선거 캠프엔 홍보 담당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 모두 임 전 실장의 후배들이다.

오프라인 전략홍보실장은 임 전 실장의 고교 후배인 윤성욱 실장이며, 온라인 전략홍보실장은 서울대 후배인 이진우 서울대 진로정보센터소장이 맡고 있다.

특히 정통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연홍 청와대 공홍복지수석,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장다사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등도 임 전 실장의 우호적인 고교 인맥으로 통한다.

정치권에선 친이계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과 매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적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일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의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요양시설용 건물 동구 대지197 건평807 법인이전할 9억
•요양시설 등 적당. 화순군 도곡 대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창장로 슈퍼, 대지 27 건평 30 공시가 1억9200 매도 1억7천
•오지동 소방서앞 3층 상가주택 대지71 건평105평 3억4천
•유동 로타리 대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병원, 사옥, 요양시설
적합 법인이전 2억
•누문동 모텔 대지130 객실24 영업일월 6억7천
•누문동 일고 부근 단층 상가주택 대지36 공시지가 1억2500 상가는 임대중이고 주택은 공실 1억8백
•양동 식당과 여관 대출 2억 대지 89 건평 256평 3억2천
나대지
•창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철거해야할 원룸 생활주택적합 공시지가에 매도2억5600만원
•창장동 삼계면 편백나무가 많은산 10900평 환자분들 요양시설에 좋음. 매도 1억
•공장부지 환광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접했음 2억8천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거리 코너 공시지가 4억7천 매도5억3천
•공장부지 나주시 반남면 갈동지 5160 5억 4천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시지가 6억 3300 매도5억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로면 상업지역 249평 생활주택형 오피스텔 적합 공시지가 9억4천 매도 8억
시골주택 및 주택지
•화순 남면 대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할 1500만원
•담양군 봉산면 주택지 157평 대출 4천 매도 4600만원
•장성 서삼면 급계리 대지 3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보성군 대원사 입구 광주에서 25여분 거리 경관좋은 땅505평 평당 17만원 (8600만원)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고고용센터 옆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매수 매도 대기중
■건축상담■
예산 부족으로 건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 부지를 가지고도 경향이 없어 건축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
호텔! 무인텔! 사무나! 빌딩! 주택! 상가건물!
건축비, 시공비 없어도 신속에서 준공, 분양까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해 주십시오.
신속한 건물 신속 공사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구 인 ■
함께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교물건(상가빌딩매매)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 서구 회정동 로마.이트부근 모텔 대지 99평 건평 344평 룸 00실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원동 동경대후문 원룸 대지71평 건평 98평 방15실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94000평
* 광산구 신항동 보강대 부근 대지 630평 건평 460평
* 남구 신안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평 210평
광교물건 (토지매매)
* 상무지구 차평동 대지 1000평
* 서구 서창동 대지 948평
* 북구 두원동 대지 5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1.900평
* 나주 신안동 대지1.900평
* 광산구 수완동 대지 10.737평
* 나주 금천면 왕곡리 대지 3.200평
* 지도원동 바닷가부근 대지2.340평
* 창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500평
* 광안동 덕려리 대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홀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대인등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남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 011-802-23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송정역2번출구)